

의학 속 문학 ㉞ 의학에 녹아든 문학 요소
유담(시인, 전 한림의대 교수)

의학은 단순히 사람의 생물학적 상태의 변화만을 탐구하는 학문이 아니다. 더 집중하여 겨냥하는 것은 환자들이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다. 그렇다고 병력을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음성언어 듣기만은 아니다. 진료실에 들어서는 환자의 인상, 몸, 걸음걸이, 병력을 묻고 답하는 중에 파악하는 음성과 성격에서부터 혈액, 소변, 영상 촬영 등의 검사에 이르기까지 드러나는 사람의 무늬, 즉 인문을 살피고 파악한다. 환자만이 아니다. 함께 온 보호자의 표정과 언행도 눈여기고 귀 기울인다. 이처럼 의학은 질병 서사와 관련하여 사람의 모든 무늬를 살피고 실행한다. 문학 작품에서 우리는 등장인물의 진정한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행간의 의미, 어조, 은유를 찾는다. 의사도 환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이와 같은 능력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진찰 중에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신가요?”라는 질문에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환자의 표정과 색깔, 걸음걸이, 단어 선택과 목소리 등을 통해 깊숙이 자리 잡은 불안감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의학에서 서사적 역량은 의료의 질을 의미 있게 좌우할 수 있는 요소다.

서사적 능력을 기르는 방법은 다양하다. 능동적으로 경청하고 서사적으로 질문하기, 시각 자료 활용 등도 중요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단연 문학이다. 문학 작품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훈련을 통해, 의사는 환자의 증상과 징후 뒤에 숨겨진 세미한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은 나와 완전히 다른 형편의 관점을 경험하게 한다. 이는 공감 능력을 키운다. 저절로 의료진은 자신의 무의식적인 편견을 인식하여 환자와 의사의 간극이 좁아져서, 보다 선한 진료로 이어진다. 질병의 의학적 성상을 적은 의학서를 탐구하는 것과, 그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수기를 읽는 것은 전연 다른 차원의 체험이기 때문이다.

진료 과정에서 마주한 환자의 사적인 사연이나 의료진이 느낀 감정을 기록하는 습관 또한 중요하다. 이는 환자의 처지에서 질병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공감의 깊이를 더해준다.

또한 문학이 다루는 도덕적 갈등, 질투, 모순 등은 의학 윤리의 핵심 요소들과 맞닿아 있다. 즉, 문학은 의료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윤리적 난제들을 미리 고민하고 성찰하게 하는 훌륭한 시뮬레이션 장치다.

마지막으로 의학 현장은 정신적 에너지가 크게 소모되는 곳이다. 독서나 성찰적 글쓰기와 같은 문학적 활동은 의료진이 겪는 심리적 충격과 상실감을 치유하는 해법이다. 자신의 경험을 더 넓은 인간적 서사의 일부로 객관화하여 바라봄으로써, 의료인으로서 다시금 긍정적인 태도를 회복할 수 있게 돕는다.

그렇다면, 문학의 어떤 요소가 의학에 영향을 주는가? 의학 속에 녹아 있는 문학적 요소들 몇몇을 살펴본다.

1. 서사

의학은 인간의 생로병사라는 서사를 다룬다. 그 주제와 의도를 제외하고라도 서사는 사건을 의미 있는 순서로 구성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행위 또는 방법이다. 문학은 서사 기법을 사용하여 복잡한 주제, 감정,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예술 형식 또는 내용이다. 문학은 문학적 장치,

등장인물, 줄거리, 문체를 통해 이야기를 매력적이고 공감할 수 있게 만들어 문화적 이해와 표현의 토대를 형성한다. 본질적으로 문학은 서사를 활용하며, 서사는 이야기에 생명을 불어넣고 의미를 부여하는 역동적인 틀 역할을 하여 다양한 해석과 감정적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이 글의 도입부에서 일렸듯이, 잘 이루어지고 또한 잘 이해된 질병 서사는, 환자의 삶의 경험과 임상적 사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 의사와 환자 간의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며,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임상적 추론을 안내하고, 인간적인 돌봄과 자기 성찰을 촉진함으로써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서사는 질병을 단순히 증상의 집합이 아닌 개인적인 이야기로 변화시켜, 공동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생물학적 차원을 넘어 감정적, 문화적, 실존적 차원까지 포괄하는, 보다 전체적인 건강 이해를 촉진한다. 이러한 의학에서 서사의 주요한 역할을, 간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조식으로 부연한다.

첫째, 환자로 하여금 자신의 질병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환자는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증상을 이해하고 의료적 사건을 삶의 맥락에 통합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의미를 찾는다.

둘째, 의사가 환자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의료진은 차트를 넘어 환자의 감정, 가족, 및 문화 등의 더 넓은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더 효과적이고 공감적인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의사소통 및 신뢰를 증진한다.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은 더욱 견고한 관계를 구축하고, 환자가 중요한 세부 사항을 공유하도록 격려하며, 신뢰를 구축한다.

넷째, 임상적 추론을 형성한다. 서사는 복잡한 환자 이야기, 즉 침묵, 몸짓 포함을 포함한 환자의 무늬인 환자의 인문을 해석하고 감별 진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어, 질병뿐 아니라 환자 개인에까지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한다.

다섯째, 공동 의사 결정을 촉진한다. 치료 계획을 함께 세우는 과정은 의사와 환자 간의 공동 서사가 되어 참여도와 치료 순응도를 높인다.

여섯째, 소진을 완화하고, 회복력을 증진한다. 환자 이야기를 되돌아보는 것은 의료진이 어려운 경험을 처리하고, 자신의 편견을 이해하고, 자신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되어 의료진의 소진을 줄인다.

일곱째, 의료의 인간화. 개인적인 이야기를 강조함으로써 환자 중심적이고 인간적이며 효과적인 의료를 제공한다.

여덟째, 서사를 쓰는 행위는 환자뿐 아니라 의사도 치유한다. 환자가 자신의 투병기를 기록하거나, 의사가 환자의 삶을 깊이 이해하며 차트를 적는 행위는, 문학적 공감과 치유의 과정을 공유한다.

‘질병은 하나의 이야기이며, 의학은 그 이야기를 읽는 학문이다.’라는 데 기초하여 서사의학이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2. 은유와 상징

은유는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연결하는 힘이 강하고, 상징은 관념의 깊이를 심화하는 힘이 강하다. 상징은 은유가 반복되고 굳어져서 만들어지기도 한다. 은유와 상징은 상호보완적이다. 의학은 질병을 설명할 때 본능적으로 문학적 기법인 은유와 상징을 사용한다. ‘병마와 싸워 이기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아낸 면역체계’ 전쟁의 은유다. 질병과 바이러스는 적군이 쳐들어와 전쟁터인 신체에서 전투했다. 또한, 의학 용어 중엔 문학에서 온 게 많다. ‘베르테르효과’ ‘스탕달 신드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증후군’....

그렇다면, 왜 의학은 문학적 은유와 상징을 사용하고 있는가?

1) 인간은 상징을 만드는 동물

“인간은 물리적 사실 세계가 아니라, 상징을 통해 구축된 의미의 세계에 살고 있다.”라는 독일 철학자 에른스트 카시러(Ernst Cassirer, 1874~1945)[그림 1]의 ‘상징적 우주’를 인용한다.



그림 1. 에른스트 카시러

의학은 얼핏 메마른 과학과 데이터의 영역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고통받는 인간’이 있다. 인간은 생물학적 실재를 직접 마주하기보다 언어와 상징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존재이기에, 의학에서 문학적 은유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예를 들어 암세포의 증식이라는 물리적 현상을 인간은 그 자체로 경험하기보다, 그것을 침략자나 싸워야 할 적 혹은 삶의 불청객이라는 상징적 우주 속에서 받아들인다. 그 상징적 우주에 들어갔다 나오는 표현은 자연스레 전쟁 용어인 서사적 은유다.

따라서 환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질병에 부여한 상징적 의미를 분석해야 한다. 은유는 의학의 언어가 닿지 못하는 인간 경험의 고유한 구조를 드러내는 방식이다.

의학에서 문학적 은유를 자주 활용하는 이유는 인간이 상징을 통해서만 현실을 온전히 감각하고 감당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은유는 ‘질병’이라는 생물학적 사건을 ‘삶’이라는 인문학적 맥락으로 번역해 주는 가장 인간적인 문학 요소다. 인간은 질병이라는 생물학적 사실을 단순히 데이터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언어, 신화, 예술, 종교, 과학 등으로 이루어진 상징적 우주 속에서, 자신이 속한 상징적 체계-언어, 서사, 비유-를 통해 해석하고 수용한다. 즉, 인간은 상징을 만드는 동물(Animal symbolicum)이어서 의학에 문학적 은유가 풍부하다.

2. 고통의 언어화

고통은 주관적이며 때로는 언어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한 영역이다. 이를 전달하기 위해 의학은 문학적 형용사를 빌려온다.

“고통은 그 자체로 언어를 파괴한다.”라는 미국의 저명한 영문학자이자 하버드 대학교 교수

인 엘레인 스캐리(Elaine Scarry)[그림 2]의 말처럼, 심한 고통은 기존 언어 체계를 무너뜨린다. 부연하면, 자신의 통증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깨뜨려버린다. 성격·직업·생활환경·삶의 이력, 때론 독서(讀書)를 통한 간접 체험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은유를 동원하여 통증을 표현한다. ‘칼로 베는 듯한’ ‘타는 듯한’ ‘천근만근 같은’.... 이러한 은유적 장치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의사가 질병의 본질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현저한 도움이 된다.



그림2. 엘레인 스캐리

의학에서 문학적 은유를 언급하면서, 반드시 함께 짚을 점은 수전 손택(Susan Sontag, 1933~2004)[그림 3]의 호소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질병이 은유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가장 진실한 방법으로 질병을 다루려면 -그리고 가장 건전한 방식으로 질병을 겪어내야 한다면- 질병을 은유적으로 생각하는 사고 방식에 될 수 있는 한 물들어서는 안 되며, 그런 사고방식에 저항해야 한다는 점이다.”

- 수전 손택, 『은유로서의 질병』 서문에서



그림 3. 수전 손택 : 수전 손택 1979 ©린 길버트.jpg CC BY-SA 4.0

손택은 질병 그 자체보다 질병을 둘러싼 은유와 상징이 환자에게 어떤 폭력이 되는지를 날카롭게 분석, 비평했다. 질병이 단순히 생물학적 현상을 넘어 도덕적, 심리적 상징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하며, 은유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병에 은유 서사가 덧칠해지면서, 환자는 단순히 아픈 사람이 아니라, 성격의 결함이나 삶의 태도에 관한 결과를 짊어진 사람으로 보는, 문학적 낙인 또는 인과응보적 죄인으로 보는 것은, 의학적 사실의 명확한 문학적 왜곡임을 강조했다. 또한 질병 과정을 전쟁터의 군사적 용어로 은유함으로써, 치료의 결과를 승리와 패배로만 바라보게 한다고 개탄했다.

선한 의사는 환자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 사이의 여백에 담긴 고통의 언어와 그 은유의 적절함까지 읽어내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3. 플롯

먼저, 의학과 문학의 맞닿는 부분을, 소설 등의 이야기 뼈대가 되는 핵심 요소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표로 정리한다.

표 1. 의학과 문학의 맞닿음

구분	문학적 요소	의학적 상황
플롯	기승전결의 구조	발병 - 진단 - 치료 - 회복/죽음의 과정
등장인물	인물의 성격과 배경	환자의 유전적, 환경적, 심리적 배경 이해
주제	삶의 의미와 죽음	연명의료, 안락사, 생명 윤리에 대한 고뇌

표1에서 보듯이 문학과 의학 모두에서 플롯, 즉 구성은 혼란스러운 일련의 사건들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조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 작가가 소설을 쓰듯, 둘 다 서사 구성, 즉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여 의미와 인과관계를 찾는 과정에 참여한다.

문학과 의학의 플롯 측면에서 주요 유사점을 프라이탁의 피라미드 구조(Freytag's Pyramid)를 기조로 기술한다.

의학적 진단 과정은 고전적인 극의 프라이탁의 피라미드 구조를 반영한다. 둘 다 긴장과 해소의 궤적을 따른다. 프라이탁 피라미드 구조는 독일 소설가 구스타프 프라이탁(Gustav Freytag, 1816~1895)[그림 4]이, 소설가들이 수천 년 동안 사용해 온 구조를 설명하려고 이 서사 피라미드를 개발했다. 프라이탁의 피라미드는 이야기의 다섯 가지 핵심 단계를 설명하며,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데 필요한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



그림 4. 구스타프 프라이탁

다음은 프라이탁 피라미드의 5단계 구조를 그린 것이다[그림 5]. 그림에서 ‘해결’ 부분은 의학적 상황을 고려하여 넓이로 표시하였다. 발병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지 않는 질병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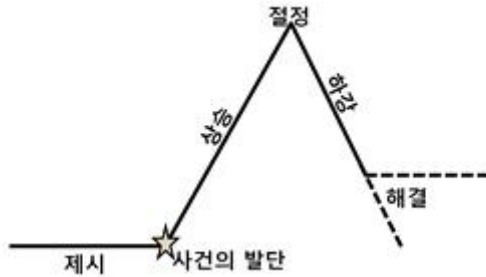


그림 5. 이야기의 단계-프라이탁 피라미드(Freytag's Pyramid). ‘해결’ 부분은 의학적 상황을 고려하여 넓이로 표시하였다. 완치되지 않는 질병도 꽤 많다.

프라이탁 피라미드의 흐름은 ‘긴장감의 고조와 완화’다. 서양을 비롯한 전 세계의 다양한 이야기 구조에서 이러한 기법을 찾아볼 수 있다. 프라이탁 피라미드 구조는 서양문학에 적합하고, 우리 문학-특히 소설-엔 어색하다는 견해와 함께, 일반적으로 소설의 5단계는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이라 한다. 두 구조의 큰 차이는 절정의 위치다. 프라이탁 피라미드는 세 번째 단계, 즉 전체 과정의 가운데 자리하여, 그 후 서서히 풀어 해결에 이른다. 이와 다르게, 통상의 소설 구성 구조에선 절정이 다소 후반에 자리한다. 가능한 막판까지 긴장을 최대한 끌어 올렸다가 극적으로 폭발시키듯 속도감 있게 마무리 짓는 현대적 서사 구조에 더 가깝다. 그러나, 절정의 위치에 상관없이, 통상의 구조에서도 그 흐름은 ‘긴장감의 고조와 완화’로 프라이탁 진행과 같다.

천차만별한 투병 과정을, 단순화를 강조하여 제안한 단계 구분으로 흡족히 헤아려낼 순 없을 것이다. 때로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상태로 장기간 머물기도 하고, 혹은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질병 이야기마다 그 자체로 온전한 하나의 서사 모델임을 받아들이는 유연한 능력, 이 또한 서사적 역량이다.

의학과 문학의 플롯 진행을 프라이탁 피라미드의 단계에 따라 표 1에 요약한다.

표 1. 의학에서 프라이탁 피라미드 단계

문학 플롯	의학 상황
발단	환자가 자신의 병력(배경 이야기)을 제시, 의사는 상황(생활 방식)과 인물(가족력)을 파악. 통증, 덩어리, 기침과 같은 갑작스러운 증상과 징후의 변화는 마치 갈등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신체의 정상 상태를 깨뜨림 즉, 병력 청취와 증상 진찰.
상승	검사, 영상 촬영, 신체검사 등의 진단이 진행되면서 불확실성과 긴장감이 고조. 즉, 진단 과정.

절정	결정적 발견의 순간. 미스터리가 풀리고 질병의 정체가 밝혀짐. 즉, 진단이 내려짐.
하강	치료 계획이 실행되면서 회복, 만성 질환 관리 또는 사망 등 새로운 정상
결말(대단원)	상태에 도달. 즉 치료 및 결과.

프라이탁의 플롯은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다. 주인공의 시련은 결국 어떤 결말-회복 혹은 비극적 죽음-으로 귀결된다. 질병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치료를 통해 다시 건강했던 과거로 돌아가는 구조다. 물론 필자가 ‘해결’ 단계를 범위로 표시하여 보완하긴 했지만, 모두 예전처럼 건강해지지는 않는다. 질병 서사의 전개는 매우 다양하다.

『아픈 몸을 살다』의 저자인 미국의 사회학자 아서 프랭크(Arthur Frank, 1946~) [그림 6]는 질병의 경험이 항상 프라이탁식의 깔끔한 피라미드 구조를 따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 가지 서사 유형을 제시했다.



그림 6. 아서 프랭크

첫째, ‘복원 서사’는 프라이탁의 피라미드와 가장 유사하다. ‘어제는 건강했다가 오늘은 아프고, 내일은 다시 건강해질 것이다.’ 질병이라는 위기를 겪고 의학적 처치를 통해 다시 ‘제시’ 단계의 평온함으로 복귀하는 선형적 구조다. 의학, 환자, 보호자 모두 소망하는 서사다.

둘째, ‘혼돈 서사’는 프라이탁의 피라미드를 완전히 벗어난 서사다.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시간적 순서나 예측할 수 있는 인과관계 없이, 끝이 보이지 않는 늪에 빠진 상태다. 기승전결의 구조를 갖출 수 없으며, 상승도 하강도 없으며, 오직 현재의 고통만이 파편적으로 존재한다.

셋째, ‘추구 서사’는 질병을 수용하고 그 경험을 통해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이다. 질병이라는 시련-위기를 통해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변화하며 절정, 하강, 해결을 맞이한다. 단순히 과거의 건강한 상태로 복원되는 것이 아니다. 일부 평자는 프라이탁의 구조를 ‘성장 소설’의 형태로 변주한 플롯이라 이른다. 프랭크 교수는, 환자가 자신의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 서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프랭크 자신이 고통을 앓고 있다.

플롯의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소설은 마무리를 짓고 의학은 예후를 진단한다. 작가와

의사 모두 서사의 논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튀는 불만족스러운 결말-치료 중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소설 전개에서 개연성의 부족-때문에 고심하곤 합니다. 의학은 의학적 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문학은 인간의 조건을 변환시키거나 하여 문제를 탐구하려 한다는 차이가 있다. 두 영역 모두, 파편화된 생물학적 사건들을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엮어내기 위해 인간 특유의 서사적 본능에 의존하며, 그 서사적 본능은 플롯을 쫓는다.

맺는 글

청진기로 듣는 심장 박동은 단순한 생리적 기호가 아니다. 한 사람의 생애가 몸의 언어로 적는 고유한 서사의 울림이다. 질병이라는 이름의 아픈 터널을 지나는 몸의 발화(發話)를 수치화된 부호로 전부 알아들을 순 없다. 의학의 과학적 언어는 문학의 서사적 수사를 만날 때 비로소 치유라는 또렷한 언어가 된다.

의학은 과학의 언어로 몸을 고치고, 문학의 언어로 마음을 위로한다. 결국 이 두 분야는 공통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의학은 가장 문리적인 과학이며, 문학은 가장 과학적인 인간 탐구다. 그래서 의학 속엔 문학적 요소가 자연스레 세거(世居)하며, 덩굴을 번어 서로 얽혀 재주(在住)하고 있다. 그 재주의 자리엔, 질병을 단지 고쳐야 할 실수나 탈(傾)로 보지 않고, 마땅한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여려고 가장 따스하게 공글린 인간 탐구와 치유가 만발하다.

<주요 참고 문헌>

유담. 서사의학-이야기로 의학을 한다. 문학청춘 2023;58:272-291.

유담. 의학에서 문학의 샘을 찾다. 황금알, 서울, 2023.

수전 손택(Susan Sontag)/ 이재원 역. 은유로서의 질병. 이후, 서울, 2002.

약력: 유담(柳潭). 본명 유형준(柳亨俊). 1953년 서울 태생. 1998년 『문학예술 동인지』, 2013년 『문학청춘』으로 등단. 1992년 『문학예술』(수필) 등단. 서울대 의대 및 동 대학원(의학박사). 서울대병원 내분비 내과(전문의). 한국 의사시인회, 문학청춘작가회 초대 회장. 한림의대 내과학 및 의료인문학 교수 역임. 문학청춘작가회 동인지 작품상 수상. 현재: 의학과 문학 접경연구소 소장, 한국 의사수필가협회 회장, 함춘문예회 회장, 쉼표문학 고문.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 명예회장. 씨엠병원 내분비내과 과장. 단독 저서 『당뇨병 교육』 『당뇨병의 역사』 『당뇨병 알면 병이 아니다』 『성인병 알아야 이긴다』 『노화수정 클리닉』, 시집: 『두근거리는 지금』 『가라앉지 못한 말들』, 산문집: 『늪을 오디세이아』 『의학에서 문학의 샘을 찾다』(2023년 출판 콘텐츠 창작 지원사업 선정작) 『글 짓는 의사들』 『우리나라 최초 의사문인 포백 김대봉 문학선』

《문학청춘》 2026 여름 68호 pp.352-363.